



천연물질 약효 평가 신중해야

신 영 오 | 서울대 미생물학과(이학박사)
국립보건원 면역결핍 연구실장 역임
현 강원대 의대 부학장

우리 나라와 같이 특효 의약품이 많이 개발되는 나라가 드물다는 말이 있다. 저녁 9시 뉴스에는 수시로 세계 첫 번 아니면 두 번째의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등의 특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년 지나면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특보의 결과에 대해 궁금히 여기며 대부분의 특보는 일반인의 망각 속으로 사라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제약산업의 후진국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인된다. 연구자 자신이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잘못 해석한 경우가 있는 가하면 연구비를 준 기관에서 은근히 홍보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특보에 대한 담당기자의 욕구에 의하여 연구자의 의도에서 벗어나 과장되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건 실제와는 거리가 먼 논문 발표나 주장은 불신과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 자신과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났다. 한 예로서 1990년대 중반에 인삼연초연구소에서 부탁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을 때 연구책임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홍삼이 마치 에이즈치료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당시 필자가 수행한 주 내용은 홍삼을 감염인에게 투여하였더니 특정 세포 수(CD4)등 몇 가지의 마카들이 수개월간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 이러한 마카들이 서서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실험은 대상자에 대한 투여 전후

의 실험 결과이었기에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다.

임상효과는 적합한 대조군이 없어 언급할 수가 없었다. 일시적인 CD4세포 수의 증가와 에이즈 치료와는 동일시할 수는 없는 성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학계의 많은 인사들은 필자 스스로가 과장된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생각하여도 부끄러운 일이다. 근래 필자가 주관하여 시작한 연구과제에서 연구원 중의 한 분이 홍삼이 암을 예방한다는 내용을 기술한 기사가 있었다. 1992년에서 1996년 사이라면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있었던 기간의 일이다.

13개월의 홍삼 투여 기간을 포함한 5년의 연구 기간 중에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차이를 조사하였다고 한다. 홍삼 복용군에서는 5.0%(20명중 1명)만이 그리고 비복용군에서는 25.0%(28명중 7명)가 암으로 사망하였으니 분명히 홍삼의 암 예방효과로 인한 차이로 해석한다고 하였다. 암의 발생에서 사망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여년 짧아도 7년 내지 5년으로 생각된다.

진단시점이 아닌 암 발생시점 후 4년 내에 사망하는 암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연구에 포함된 두 그룹간에는 이미 암을 가진 사람의 수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4년간의 사망 분포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1996년에 모두 사망하였다 하여도 대부분의 경우 암은 이미 3, 4년 전부터 있었을 것이며 사망률에 차이를 주었다면 이는 치료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상기의 자료로서 홍삼이 암을 예방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불행하게도 홍삼이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본 연구책임자와 무관함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

천연물질의 에이즈효과에 관한 평가는 이와 같이 전문인들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비전문인들이 주장하는 약효나 비방은 대부분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근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소위 비방(秘方)의 효과를 시험하고 확인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은 소위 비방을 감염인에게 복용시키거나 시술시키고자 시도한다. 직접적으로 의사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 높은 분을 통한 특별 부탁(?)을 하거나 요령 좋게 직접 감염인과 접촉하여 비약을 복용시켜 보고자 한다.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부작용이 심하여 복용을 중단하였다는 미확인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육각수”라 하는 특수 물이 효과가 있으니 시험해 달라는 사람이 있었다. 마지못해 바이러스억제 시험을 수행하였으나 역시 효과가 없었다. 또 다른 경우는 긴 편지와 집의 약도(略圖) 그리고 자기 소개서 등을 송부하면서 꼭 방문하여 달라는 역술인이 있었다.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가보지는 않았으나 극한 상황에 놓인 감염자의 경우 이를 완전히 외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극히 소수의 천연물질 이외에 뚜렷한 항-HIV작용을 보이는 물질을 찾을 수가 없었다. 특허를 받은 물질도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난점이 많다. 다시 말하면 의약품으로서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나아가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사건으로서 “땀”으로서 에이즈환자를 치료하겠다는 현직공무원이 한 때 매스컴을 장식한 적이 있었다. 이 분은 각 처를 다니면서 자기의 처방이 채택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며 일부 감염자는 시술에 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그분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에 대하여서는 알 수가 없으나 전문인의 안목으로 볼 때는 황당하게 느껴진다. 효과가 보장되지 않은 시술에 고통을 받는 감염자가 있다면 간과하기 어려운 일이다. 에이즈가 매독과 같이 열이 오르면 인체에서 죽어 없어지는 세균이 아님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필자는 한약제를 포함한 많은 물질에 대하여 항-HIV작용을 시험하였다. 그러나 극히 소수의 천연물질 이외에 뚜렷한 항-HIV작용을 보이는 물질을 찾을 수가 없었다. 특허를 받은 물질도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난점이 많다. 다시 말하면 의약품으로서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천연물질에 대한 약효 평가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에이즈상담안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 24시간 음성정보서비스
700-6191(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은 지역번호없이 사용)
- ▶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aids.or.kr>
- ▶ E-mail kada@aid.or.kr
- ▶ 상담전화 (02)675-8060(서울), (051)621-0777(부산)
- ▶ 에이즈정보센터 (02)675-4114(서울), (051)621-0444(부산)